

“등방천 복원사업 추진을”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 5분 발언 “관광특구 진입로 상징적 관문 만들어야”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등방천 복원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구천동 관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무주구천동관광특구는 해마다 약 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리조트의 하수관리, 하천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등방천으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하수관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부터 추진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진입



도로에 위치한 첫 관문이 일본 신사 입구에 세워진 ‘도리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호남제일문 처럼 우리 고유한 전통양식으로 개보수하여 재탄생 되어 상징적인 관문으로써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가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으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

지난해 282명에 정보 제공

‘조상 땅 찾기’는 무료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이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무주군청 민원봉사와 지적담(320-2261)을 방문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와 박규급 지적담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

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사망신고를 읍·면사무소에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용담호 상수원 보호 통행제한도로 운영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증 미리 발급받아야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진안군은 용담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군은 2005년 8월부터 용담호 상수원 주변 도로인 지방 795호(정전면 휴게소 삼거리~용담댐 삼거리 구간)와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 통행제한도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용담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유류·유독물, 특정수질 유해물질, 액상 지정폐기물, 농약 등을 수송하는 차량의 전복, 추락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막

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통행증을 사전에 발급받지 않고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유해물질 수송차량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에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진안군청 환경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용담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장수군은 오는 28일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장수군, 28일까지 신청

장수군은 오는 28일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 빈집의 철거로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경관개선을 실현하고 농촌 활성화 및 정주욕을 고취하고자 빈집 철거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며, 장수군은 올해 작년보다 3400만원 증액된 총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보조금은 지붕 유형과 면적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사업 추진 시 일부 발생한 자부담은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농촌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계속하여 증가하는 빈집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증액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빈집정비와 관련 신청 또는 안내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주민 외국어 교실 수강생 모집

장수군, 22일까지 선착순

장수군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외국어 교실은 기초 영어회화, 중국어 회화, 베트남어, 일본어 회화 수업으로 구성, 이 중 한 과목을 일주일에 1회, 2시간씩 무료(교재비 별도)로 배울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2일까

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장수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수군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교실인 만큼 많은 주민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장수 지역의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무주군,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무주군은 13일부터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지역개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2018년 12월 31일 기준)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 고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3월 1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를 만나는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응답자 요청 시에는 우편조사와 배포조사 등도 병행한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지영 예산팀장은 “사업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한 문의나, 민원 등은 콜센터(080-2019-110 / 2.11.~4.10. <공휴일 제외> 09:00~18:00)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진안군은 통계청과 함께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44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는 국가 지정 통계(제10137호)다.

진안군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1,900여 개다.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maeil.co.kr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